



입당송 | 시편 67(66), 2-3 참조

하느님은 자비를 베푸시고 저희에게 복을 내리소서. 당신 얼굴을 저희에게 비추시고 자비를 베푸소서. 당신의 길을 세상이 알고, 당신의 구원을 만민이 알게 하소서.

제1독서 | 이사 2,1-5

화답송 | 시편 98(97), 1, 2-3 ㄱ, 3ㄷㄹ-4, 5-6(◎ 2 참조 또는 3ㄷㄹ)

◎ 주님은 민족들의 눈앞에 당신 정의를 드러내셨네.

○ 주님께 노래하여라, 새로운 노래. 그분이 기적들을 일으키셨네. 그분의 오른손이, 거룩한 그 팔이 승리를 가져오셨네. ◎

○ 주님은 당신 구원을 알리셨네. 민족들의 눈앞에, 당신 정의를 드러내셨네. 이스라엘 집안을 위하여, 당신 자애와 진실을 기억하셨네. ◎

○ 우리 하느님의 구원을, 온 세상 땅끝마다 모두 보았네. 주님께 환성 올려라, 온 세상아. 즐거워하며 환호하여라, 찬미 노래 불

러라. ◎

○ 비파 타며 주님께 찬미 노래 불러라. 비파에 가락 맞춰 노래 불러라. 쇠 나팔 뿜 나팔 소리에 맞춰, 임금이신 주님 앞에서 환성 올려라. ◎

제2독서 | 로마 10, 9-18

복음환호송 | 마태 28, 19, 20 참조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쳐라. 내가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

복음 | 마태 28, 16-20

영성체송 | 마태 28, 20 참조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모든 민족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내가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김민 요한 신부 | 예수회(인권연대연구센터)

함께 있겠다는 말의 따뜻함

마태오복음의 마지막 장면은 참으로 깊은 울림이 있습니다. 열한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령대로 그분을 만나러 산으로 갑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때 제자들의 마음입니다. 그들에게는 경배하는 마음과 의심하는 마음이 공존합니다. 복음서에서 의심이 굉장히 안 좋게 취급 당하는 것을 생각하면 이는 참 묘한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을 생각하면 이는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종종 한결같고, 갈라지지 않는 마음과는 한참 거리가 멉니다. 현실 안에서 우리 마음은 갈라져서 한편에 예수님께 대한 감사와 사랑이 있지만 의심과 원망이 자리잡기도 합니다. 제자들의 이러한 마음은 우리의 마음을 고스란히 반영합니다. 우리 안에 반석 같은 믿음을 지닌 베드로의 마음과, 합리적이기에 선뜻 믿지 못하는 토마스의 마음이 공존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바로 이 갈라진 마음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더 애뜻하게 찾습니다.

이러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당부하십니다.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고 예수님과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우쳐 주라는 사명입니다. 성 바오로 6세 교황님께서 바로 이 구절에서 영감을 받아 1975년 <현대의 복음선교(Evangelii Nuntiandi)>라는 매우 아름다운 문헌을 반포하셨습니다. 이에 따르면, 우리에게 맡기신 복음화의 사명은 단지 세례를 받게 하는 데 멈추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사랑

하고 따르기를 진심으로 갈망하는 우리의 모습이 다른 이들에게 영감을 주어야 한다는 것이 오늘날 복음화의 참된 의미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은 정말 좋습니다. “보라, 내가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이 약속은 구약에서도 발견되는 하느님의 영원한 약속입니다. 예수님의 충실함, 하느님의 충실함이 재천명됩니다. 충실함, 즉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겠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참 약한 존재입니다. 예수님을 직접 만나는 순간에도 한기닥 의심을 품었던 제자들처럼 말입니다. 왜 우리는 의심할까요? 우리가 예수님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늘 충실하지 못하니까 그 한결같은 충실함 앞에서 머뭇거리며 의심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못남과 모자람으로 괴로워할 때, 좁디 좁은 마음으로 품을 수 없는 존재 앞에서 분노할 때에도, 늘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잘나서 그분이 함께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잘남이나 공덕이 아니라, 예수님의 따뜻하고신 자애로운 사랑으로 인해서 말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이며,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알려야 할 예수님의 모든 것입니다. 거룩한 충실성.



뜻을 단 배

교부들은 종종, 뜻을 단 배를 교회로, 안전한 항구를 하느님으로 비유하곤 했습니다. 성모님께 봉헌된 마르세유대성당의 후진(apse), 제대 위 반구형 돔에는 아름다운 배가 모자이크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돛에는 성모님의 상징이 새겨져 있고, 하늘에는 A와 M이 겹쳐 'Ave Maria'를 뜻하는 바다의 별이 떠 있습니다. 등대에는 십자가가 빛납니다. 화려한 꽃과 새 장식은 배의 도착지인 낙원을 의미합니다.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들의 아름다운 발걸음이 성모님의 도움으로 순풍을 만난 배처럼 세상 곳곳으로 나아가길 기도합니다.

오주열 안드레아 신부 | 삼양동(선교)성당 주임

기도 중에 기억하겠습니다 간식에서 은총까지, 우리 집 신앙 이야기



신지현 지파 | 흑석동성당(첫 영성체반 학부모)

어릴 적, 제게 기도하는 모습은 늘 가까이서 볼 수 있는 풍경이었습니다. 저녁마다 엄마가 성모님 상 앞에서 촛불을 켜고 묵주기도를 하시던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저도 그 옆에서 묵주기도와 화살기도를 따라 하곤 했습니다. 그러다 성인이 되면서 기도는 뜸해졌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아기 천사들이 제 곁에 찾아와 주지 않으면서 깨달았습니다. 작은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지요.

미약한 제 기도에도 양가 어머니들의 기도가 더해져 세 아이를 품에 안게 되었지만, 키우다 보니 성당 생활은 자연스레 멀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이가 오랫동안 친구와 힘들게 지냈다는 말을 다른 이를 통해 들었을 때 마음이 철렁 했습니다. 무엇보다 그 일을 엄마인 저와 나누지 않았다는 점이 충격이었지요. ‘내가 다 채울 수 없다면, 그 빈자리를 하느님께서 대신해 주시길’ 바라며 그날로 세 아이의 손을 잡고 성당으로 향했습니다.

처음엔 아이들이 “왜 가야 해?” 하며 투덜거렸지만, 기쁨 잔치 상품과 주일학교 간식 앞에서 금세 불평이 사라졌습니다. (은총은 늘 간식과 함께 오는 법이지요. ㅎㅎ) 무늬만 신자였던 남편도 아이들 덕을 봤습니다. 제가 아무리 권해도 꿈쩍 않더니, 아이들이 “왜 아빠는 성당에 안 가?”라고 묻자 바로 따라 나선 것입니다. 아이들 덕분에 주일미사 개근 신자가 된 남편의 모습이 지금도 참 신기합니다.

다음 해에는 세 아이가 첫영성체 교리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두 딸아이가 새벽 미사를 서야 하는 ‘복사’를 꼭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엄마, 복사단은 첫영성체 받은 해에만 들어갈 수 있대. 내년엔 못 한대.” 아이들의 말은 기도처럼 들렸고, 응답은 제 마음에서 울려나왔습니다. “그래, 해 보자.”

그렇게 시작된 3주간의 새벽 미사 특훈. 어떤 날은 1~2시간만 자고 미사에 나가면, 성당 의자인지 거실 소파인

지 헛갈릴 정도였습니다. 구석에 숨어 졸음을 감추려 했지만, 아이들 눈에 어김없이 들켰습니다. “엄마, 또 졸았지?” 하는 눈빛 말이에요. 그래도 아이들이 저를 깨워 성당으로 이끌어 준 덕분에 신앙인의 새벽을 맛볼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즐겁게 복사 활동을 이어갔지만, 저는 도와주던 와중에도 종종 벅참을 느꼈습니다. 그럴 때마다 “기도 중에 기억하겠습니다.”라는 선배 자모님의 말씀이 큰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그런 기도가 있어서 아이들은 즐겁게 봉사할 수 있었고, 저는 옆에서 꾸벅꾸벅 졸면서나마 도울 수 있었던 것이라 생각합니다.

사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저는 엄마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며 자랐지만, 제 아이들에게는 아직 그 모습을 많이 보여 주지 못했다는 것어요. 그래서 이제는 기도를 제 삶의 한 부분으로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 가족이 하느님과 늘 대화하며, 자신을 넘어 다른 이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으로 자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언젠가 저도 누군가에게 온 마음을 다해 이렇게 말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 중에 기억하겠습니다.”



한컷 묵상

“더러는 의심하였다.”는 표현을 통해 복음사가는 마지막 날까지 자신의 약점조차 결코 감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의심조차 사라지게 할 증거를 주님께서는 보여 주십니다.

- 성 요한 크리소스토모

김현진 클라라 | 작가



가톨릭교리상식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김상욱 가브리엘 신부 | 사목국 기획연구팀

! 믿음은 어떻게 갖게 될까요? 하느님께 직접 받는 것일까요? 아니면 다른 사람이 알려줘서 갖게 되는 것일까요?

1926년부터 교회는 10월의 마지막에서 두 번째 주일을 전교 주일로 지내는데 올해로 99번째입니다. 전교 주일이라 이 날은 연중 주일의 말씀이 아닌 이사야서 2장(수많은 백성들의 심판관이신 하느님), 사도 바오로의 로마서 10장, 마태오복음 28장(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쳐라)을 읽으며 '민족들의 복음화를 위한 미사'를 드립니다.

이 가운데 제2독서인 로마서 10장을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12-15절의 반복되는 단어들에 유의하며 읽으면 '파견 ⇨ 선포 ⇨ 들음 ⇨ 믿음 ⇨ 받들어 부름 ⇨ 구원'으로 이어지는 연결 구조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눈여겨 볼 부분은 '선포'와 '믿음' 사이에 '들음'이 있다는 것인데, 바오로 사도께서 16절에서는 이사야서 53장 1절 "우리가 들은 것을 누가 믿었단가?"를 인용하고, 17절에 가서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루어집니다."고 하시는 것으로 보아, '들음'을 특별히 더 강조한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믿기 위해서는 먼저 누군가에게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될 때 하느님께서 직접 관여하시지는 않는다는 것일까요?

13세기에 활동한 신학자 성 토마스 아퀴나스는 자신의 주저 《신학대전》 2-2부 6문 1절에서 믿음의 원인에 대해 논하며 믿기 위한 '들음'에 대해서도 다룹니다. 성 토마스에 따르면, 믿으려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믿도록 제시된 것이며, 다른 하나는 제시된 것을 믿는 사람의 동의입니다. 사람에게 믿도록 제시된 것은 하느님에게서 비롯되었지만, 사도들과 예언자들처럼 하느님께 직접 받은 사람들도 있고, 하느님께서 보내신 설교자들을 통해 전달받은 이들도 있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사도나 예언자가 아니므로, 하느님께 직접 믿을 내용을 받지는 못하고 간접적으

로 다른 이에게 전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믿도록 제시된 내용에 대해 동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동의는 두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는 사람의 외부에서 동의를 끌어내는 것인데, 기적을 보거나 설교를 듣고 설득되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기적을 보거나 같은 설교를 들었는데도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믿고, 어떤 사람은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결국 사람의 내면으로부터 사람을 움직여서 믿을 내용에 동의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며, 바로 하느님께서 우리 내면을 당신의 은총을 통하여 사람의 내면을 움직여 주실 때 가능한 일입니다.

정리해 보면, 우리가 믿는 내용들은 하느님께서 당신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신 것으로, 사도들과 예언자들과 설교자들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을 내용에 관해 동의할 때는 기적과 설교에 의해 설득될 수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하느님께서 우리 내면 깊숙한 곳에서 당신 은총을 통하여 움직여 주심으로써 믿게 됩니다.

따라서 '전교', 곧 누군가가 믿음을 갖도록 하는 것은 단순히 믿을 내용을 알려주는 것만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 속 깊은 곳에서 은총으로 움직여 주시기를 기도하고 간절히 청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세례를 청하는 이에게 세례식을 집전하시는 프란치스코 교황님 모습(사진출처: Vatican Media)

‘임마누엘’ : 이사야의 신앙 고백



박진수 사도요한 신부 | 가톨릭대학교 성신교정

구약성경의 예언서들에는 ‘소명사화’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는 예언자들이 어떻게 예언자로서 소명을 받았는지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내렸다. … ‘너는 내가 보내면 누구에게나 가야 하고 내가 명령하는 것이면 무엇이든 말해야 한다.’”(예레 1,4,7)라는 식의 내용입니다. 이러한 소명사화들의 공통된 특징들 중의 하나는 대부분 예언서의 맨 앞부분에서 언급된다는 점입니다. 방금 살펴본 예레미야서에서는 1장에, 에제키엘서에서는 2장에, 그리고 호세아서에서는 조금 다른 형식으로 1장 2절부터 9절에 등장합니다. 특히 호세아는 하느님의 명령으로 창녀 고메르를 아내로 맞아들임으로써, 자신의 삶 자체가 하느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도구가 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예언자들은 자신의 소명사화를 예언서 초반에 언급하는데, 그 이유 중 하나는 자신이 전하는 메시지에 권위를 주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치 고대 그리스 수사학에서 자신의 말에 신뢰감을 더하기 위해 ‘에토스’(ethos: 화자의 인격과 신뢰성)를 강조했던 것과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의 소명사화는 여타 예언서들과 차이를 갖습니다. 우선, 예언서의 맨 앞부분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 예언들이 선포된 후 6장에 이르러서야 언급됩니다. 또한 예언자는 여기에서 자신을 선택하신 하느님을 거룩한 분으로 고백합

니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만군의 주님! … 그분께서 말씀하셨다. ‘너는 가서 저 백성에게 말하여라.’”(이사 6,3,9) 이사야서는 소명사화를 왜 6장에서야 보여주며, 그 안에서 하느님의 거룩함을 고백하는 것일까요?

이사야서가 지닌 이러한 차이점은 이사야서의 구조를 통해 이해할 수 있습니다. 6장의 소명사화를 통해 하느님의 거룩하심을 선포한 이사야 예언자는 7장에서 다윗 메시아에 대해 예고합니다. “젊은 여인이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입니다.”(이사 7,14) ‘임마누엘’은 히브리어로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사야가 7장에서 선포하려고 하는 다윗 메시아가 가져올 구원의 의미는, 6장에 있는 소명사화로 인해서, 거룩하신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의미로 강조됩니다. 즉,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은, 우리가 하느님의 거룩함 곁에 있을 때 진정한 구원에 이를 수 있음을 선포하는 이사야의 신앙고백이라고도 이해할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마태오복음을 통해 이사야의 이 신앙고백이 예수님을 통해 실현되었음을 보게 됩니다.(마태 1,22-23 참조)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느님의 거룩함에 대해 묵상해 보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기



백근재 도미니코 사비오 | 서울대교구 청소년국 중고등부 교육부

본당에서 교사로 활동한 지 10년쯤 되었을 무렵, 교구 청소년국에서 마련한 근속 교사 성지순례에 참여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 때는 교사 생활이 길어지면서 반복되는 교리와 행사 준비가 신앙 활동이라기보다 '일'처럼 느껴지기 시작할 무렵이었습니다. 사실 늘 아이들을 위한 캠프와 피정, 교리 준비에만 몰두하다 보니 정작 제 개인의 신앙을 위한 시간은 마련하지 못한 채 조금씩 교사 생활에 힘이 빠지고 있었기에, 무언가 저를 위한, 저의 신앙을 위한 시간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느끼던 때라 큰 기대를 품고 성지순례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성지순례를 기다리며 다양한 기대가 생겨났지만, 그중 가장 큰 것은 성지순례지가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실제로 활동하셨던 장소들을 순례하며 그분을 더 가까이에서 만날 수 있으리라는 설렘이 컸습니다. 하지만 제 기대와는 달리, 예수님께서 설교하시던 갈릴래아 호수에 가도, 첫 기적을 행하셨던 혼인 성당에 들러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걸으셨던 길을 따라 걸어도 이상하게 저는 예수님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기대와는 다르게 채워지지 않는 그 무엇인가 때문에 제 성지순례는 점점 방향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느끼고 만날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매일 밤 공식 일정이 끝난 후 함께 순례하는 선생님들과 모여 그날 방문한 성지와 관련된 복음 말씀을 묵상하고 하루 동안 느낀 점을 나누었던 시간, 또 매일 성지 성

당에서 함께 드리는 미사와 기도 시간은 제 순례를 따듯하게 채워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성지순례에 대한 제 기대가 한참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는 늘 제 곁에 계시고, 다양한 모습으로 저와 함께하고 계셨음에도, 부족한 제 신앙으로 만나지 못했던 것인데,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계셨던 장소에 간다고 그분과 가까워질 수 있으리라 생각했던 점이 참 부족했음을 알게 되었죠. 지금 함께 순례 중인 동료 선생님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게 오셨듯, 평소 교사 생활 속에서 만나는 주일학교 친구들, 희로애락을 함께 나누는 동료 교사들, 늘 우리를 위해 애써주시는 신부님, 수녀님, 본당 신자 분들을 통해 예수님께서 항상 함께해 주셨는데, 그런 예수님은 알아보지 못하면서, 이스라엘만 가면 갑자기 예수님을 만나고 느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던 것이죠.

교사 생활을 하다 보면 성지순례에서 경험한 것처럼, 계획대로 되지 않거나 기대와 다른 결과에 실망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계획으로 제 삶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통해 많은 것을 보고 느꼈지만, 가장 큰 깨달음은 멀리서만 하느님을 찾던 저에게 하느님께서 늘 함께하고 계셨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매일 다양한 모습으로 다가오시는 하느님을 더 기쁜 마음으로 맞이하며,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사랑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



민범식 안토니오 신부 | 대신학교장

중년 시기를 다루는 에릭슨의 발달 모델 일곱 번째 단계(40세~65세)의 과업은 '생산성 대 침체감'입니다. 앞선 단계에서 두 사람 사이에 친밀감이 형성되면, 그 관계는 두 사람을 넘어 사회와 다음 세대로 이어진다고 에릭슨은 설명합니다. '생산성'은 좁게는 자녀를 낳고 기르는 것을 의미하지만, 넓게는 다음 세대에게 자신의 능력이나 가치를 전수하는 모든 활동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회적 봉사도 생산성을 발달시키는 계기가 됩니다. 그런데 어떠한 이유로든 생산성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면 침체감이 형성됩니다. 미래의 자손들에게 전해주고 이바지할 만한 것이 없다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두기보다 자기 욕구에 더 치중하게 되어 관대함이 없어지고 자기중심적인 모습이 강해지죠.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면 만족감과 성취감을 얻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자신에게 몰두하거나, 또는 공허함, 지루함, 외로움 등을 느끼면서 또다시 침체감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남에게 주기만 하면, 탈진하거나 내적 공허함에 부딪히거나 상대방을 숨 막히게 할 위험이 있습니다. 반대로 받기만 하면, 자기중심적이 되거나 지극히 개인주의적인 사람이 될 위험도 있죠. 다른 사람에게 주는 '생산성'과 자신에게 주어지는 것을 받아들이는 '자기 몰입' 사이의 균형을 이룰 때, 타인을 돌보는 힘이 생겨납니다. 에릭슨은 이 힘을 '돌봄'이라고 부릅니다.

타인을 돌보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을 돌보는 일입니다. 다른 사람을 돌볼 때 우리 자신도 더 건강해지죠. 왜

그럴까요? 다른 사람을 돌보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하느님의 모상성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입니다.(민범식, 《하느님 길만 걸으세요》, 161-165; 243-248쪽 참조) 그래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돌볼 때 우리는 하느님을 닮은 본래의 모습이 되고 더 건강하게 자기실현과 자기완성을 이루게 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도 개인주의나 무관심, 이기주의에서 벗어나 더욱 인간답고 고귀하게 살아가자고 격려하십니다.(프란치스코, 《복음의 기쁨》 208항 참조)

이는 신앙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어느 사회심리학자는 '보살핌'이 인간이 지닌 본능 가운데 하나라고 말합니다.(셸리 테일러, 《보살핌》, 사이언스북스 2008) 자기 본능대로 움직일 때 더 편안하고 좋은 것이 당연하죠. 그래서 이웃 사랑은 지켜야 할 계명이나 의무가 아니라, 우리가 지닌 본성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돌보고 보살필 때 얻게 되는 느낌이 어떤지는 더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아실 겁니다. 하지만 세상은 점점 더 자신만 챙기라고 부추깁니다. 나 하나 살아가는 것도 힘든데 다른 사람을 돌보는 건 어리석은 것이라고 유혹하죠. 공감하는 면도 없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힘든 현실이기도 하나까요. 하지만, 돌봄이 생산성이고 본능이고 하느님을 닮은 모습이라면, 그리고 그것이 내가 더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라면,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너희 아버지께서 자비하신 것처럼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루카 6,36)

상단 큐알(QR)코드를 통해 지난 연재글도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10월 19일)은 '전교 주일'로 선교 지역을 위한 2차 헌금이 있습니다

전교 주일 특별 헌금은 '교황청'에 보내 전 세계 선교 지역의 교회를 돕는 데 씁니다. 전교 주일 담화문은 서울주보 홈페이지(<http://cc.catholic.or.kr>)-교회메시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주 기억할 선종 사제

- 1939년 10월 21일 한기근 바오로 신부(71세)
- 1943년 10월 23일 정규하 아우구스티노 신부(80세)
- 1994년 10월 26일 구천우 요셉 신부(97세)

서울주보 알림 게재 신청은 서울주보 홈페이지(<http://cc.catholic.or.kr>)에서만 받습니다.

교구청 알림

제5차 성경 특강과 함께하는 튀르키예-그리스 성지순례

때: 2026년 1월 12일~23일(11박12일)
지도: 김성민 신부 / 주관: 성서못자리
문의: 010-6734-0190 십 소화테레사문자 또는 카카오톡 문의)

본당 수도자 연수

주제: 사목교서 해설 · WYD / 회비 없음(11월 11일 마감)
때: 11월 18일(화) 14시~16시, 가톨릭회관 3층 강당 / 사목국 홈페이지에서 개별 신청
문의: 02)727-2063 사목국 교육지원팀

2025 하반기 생명가치존중세미나 참가자 모집

때: 11월 1일(토) 14시~17시, 가톨릭회관 7층 강당(명동)
주제: 현대 사회에서의 인간 존엄
강사: 오석준 신부(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사무국장)
신청: 서울평단협 홈페이지(www.clas.or.kr) 공지사항 참조 / 문의: 02)777-2013 서울평단협 사무국

2026학년도 화요일아침예수학교 신입생 모집

모집: 여학생 13명(미술계열 1학급)
자격: 미술에 열정과 꿈이 있는 중학교 졸업예정자 (검정고시 합격자) / 접수: 11월 10일(월)~12월 5일(금)
문의: 070-8891-3831 교무실, 031)832-9988 행정실
홈페이지: www.flowerdaymorning.com

나눔의목사회 피정

대상: 사회복지사목에 관심있는 신자(선착순 38명)
내용: 스테파노의 삶과 영성(성인의 삶에서 성찰하는 이웃사랑 실천 & 나눔)
때: 11월 22일(토)~23일(주일), 명상의집(우이동)
회비: 15만원(개인 7만원, 본회 지원 8만원)
신청방법: 홈페이지(www.caritasseoul.or.kr-알림참여)
문의: 02)727-2244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장소영

사목국 영성심리상담교육원

1) 영성심리카데미
교육명: 성경순례 저자와 함께하는 이사야서(허영업 신부), 심리강좌(윤제연 교수), 이탈리아어(류젠마) / 문의: 02)727-2126
신청: 홈페이지(<http://seoultpc.catholic.or.kr>)-교육신청
2) 서울가톨릭상담센터 개인심리상담
심리정서(불안, 우울, 성격), 대인관계 어려움, 직장 및 학교 부적응, 가족관계 등 성인상담
곳: 교구청별관 B106호(명동), 노원성당, 삼성산성당, 천호동성당, 화곡본동성당
문의: 예약(문자가능): 02)727-2139(월~금 10시~17시)
전화상담: 02)727-2137(월~금 10시~17시)

시복시성 기원 미사(215회)

때: 10월 21일(화) 오전 10시, 절두산 순교성지
문의: 02)2269-0413 순교자현양위원회

한마음한몸자살예방센터 행사 안내

2025년 4대 중단과 함께하는 열린포럼
대상: 자살예방에 관심이 있는 모든 이
주제: 중년 자살예방
때: 10월 23일(목) 14시~16시, 청년문화공간 JU
문의(신청): 02)318-3079(3079@3079.or.kr)

2026 신구약 성경통독 회원 모집

강의: 조창수 신부 / 내용: 신구약 성경 전체
때: 11월 13일(토) 13시~16시, 가톨릭회관 3층 강당(명동)
온라인 라이브 동시 강의 / 재방송 1개월 수강 가능
2026 요르단 이스라엘 성지순례 피정: 2026년 2월 20일~3월 2일(피정지도: 조창수 신부)
문의(신청): 010-8889-5428(문자) k가톨릭 성경영성 아카데미

생명위원회 프로그램 안내

죽음교육, '맞닥뜨리는 죽음 맞이하는 죽음'
대상: 생명의 문화 안에서 죽음을 준비하는 과정에 관심 있는 분 / 회비: 4만원
때: 11월 5일~26일 매주(수) 오후 8시~10시(총 4주), 생명위원회 5층 교육실 / 문의(신청): 02)727-2351
교육일정이 화요일에서 수요일로 변경되었습니다

2025년 가을걷이 감사 미사 및 도농한마당잔치

행사: 가을걷이 감사 미사(12시), 생명농산물 직거래 나눔장터, 전시·문화·체험·먹거리마당(9시30분~15시)
때: 10월 26일(주일) 9시30분~15시
곳: 명동대성당(앞마당, 성모동산, 가톨릭회관 앞마당)
주최: 천주교 서울대교구 우리농촌살리기운동본부
일회용품·비닐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장바구니를 지참해주세요 / 문의: 02)2068-7066(wm.or.kr)

'2025 명동, 겨울을 밝히다' 관련

공개 입찰 유찰에 따른 재공고

문의: 02)727-2047 / 자세한 내용은 서울주보 홈페이지(<http://cc.catholic.or.kr>) 참조
① 11월 29일(토)~2026년 1월 5일(월)까지 진행될 'LED 장미 정원 설치, 관리'건을 공개 입찰합니다
② 12월 24일(수)~25일(목) 중 진행될 '라디오 공개 방송 및 미디어 파사드 설치 운영'건을 공개 입찰합니다

향심기도 월피정 / 문의: 010-4565-8898

대상: 소개강의 이수자 / 지도: 이승구 신부
곳: 영성센터 B201호(구 계성여고) / 회비: 1만원

직장인	11월 2일(주일) 13시30분~16시30분
일반인	11월 3일(월) 13시30분~16시30분

갤러리1898 전시 안내 / 문의: 02)727-2336

이동천 서예전: 1, 2전시실
한민 비잔틴 이론전: 3전시실
전시일정: 10월 17일(금)~26일(주일)

2027 서울 WYD 행사 안내

1) 2027 서울 WYD 주제가 공모
내용: 2027 서울 WYD의 의미와 주제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요한 16,33)를 담은 창작곡(작사+작곡) / 11월 30일(주일)까지 접수
2) 2027 서울 WYD 합창단 및 오케스트라 단원 모집
합창단: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
오케스트라: 관악기, 타악기, 현악기, 국악기
3) WYD 수퍼클래스
주제: 고통을 넘어선 희망
때: 11월 1일(토) 16시~18시, 명동대성당 문화관 코스트홀 / 강사: 박승찬 교수
4) WYD 청년 리더십 연수
때: 11월 8일(토) 14시~19시30분
곳: 청년문화공간 JU 동교동 / 위 행사에 대한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wydseoul.org) 참조
문의: 02)2230-2027 / 2027 서울 WYD 조직위

민족화해위원회

1) 제10회 2025 한반도평화나눔포럼

대상: 누구나 참여 가능
내용: 평화의 장인과 가톨릭 공동체
때: 11월 14일(금) 9시30분, 명동대성당 문화관 2층 코스트홀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sharepeace.net) 참조

2) 2025 평화의 바람 기행(4기) 참가자 모집

한반도 평화를 위하여 접경지역을 걸으며, 함께 기도해요!
대상: 도보순례 가능한 누구나 40명(신청, 입금순)
때: 11월 21일(금)~22일(토) 1박 2일 / 회비: 7만원
곳: 임진강생태길, 북한군교지, 유엔군화장장시설, 민족화해센터 / 문의: 02)753-0815
신청방법: 문자신청(010-4682-2412 링크발송)
3) 1485차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미사>
때: 10월 21일(화) 19시, 명동대성당
금주의 '내 마음의 복녘분당': 평양교구 서포 본당
문의: 02)727-2420

2025 하반기 '가톨릭 50+ 학교' 교육생 모집

대상: 50세 이상의 가톨릭 신자
곳: 교구청별관 523호 / 문의: 02)727-2385, 6
신청기간: 개강일 1주 전까지(선착순 접수소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노인사목팀 홈페이지 참조
신청방법: 노인사목팀 홈페이지 교육신청 게시판 접수

신약학: 성경 속 인물들을 통한 신약성경 교육	10월 23일(목)~11월 20일(목) 13시30분~15시30분(총 5주) / 회비: 7만원
구약학: 구약에서 체험하는 하나님의 사랑	11월 7일(금)~12월 5일(금) 13시30분~15시30분(총 5주) / 회비: 7만원

인준단체 알림

모임

13지구 성령기도회 / 문의: 010-9528-0023

때, 곳: 10월 21일(화) 13시, 중앙동성당 / 강사: 이상기

낙태 후 화해 피정(착한목자수녀회)

때: 11월 21일~23일, 12월 5일~7일(2박3일) / 회비 없음
 곳: 성 안드레아 피정의 집(인천) / 문의: 010-6637-1366

그리스도의 레지오수도회 성지순례 모집

특별 피정: 이집트, 이스라엘, 요르단 14박15일
 문의: 010-5735-4578 그리스도의 레지오 수도회

평화의 모후 청년 셀 모임(파티마의 세계 사도직)

대상: 미혼 / 문의: 02)756-3473, 010-2565-3473
 때, 곳: 매주(금) 19시, 가톨릭회관 516호

11강남지구 성령기도회 / 문의: 010-9519-1608

때: 매주(금) 19시~21시50분 / 말씀·축복기도
 곳: 역삼동성당 경환당(주차 가능) / 이상기

ICPE 오마이갯 오마이바다 피정

대상: 가톨릭 청장년 누구나
 때, 곳: 11월 14일~16일, 마리스타(합정)
 문의(접수): 010-5320-0419 / 카카오톡 플친: ICPE

희망의 순례자-청년 떼제 기도 미사

때, 곳: 10월 26일 18시, 가르멜 관구 수도원(해동동)
 문의(접수): 010-2691-4895 성령 선교 수녀회,
 010-9528-2625 가르멜 수도회

3지구 매월 셋째(주) 무료 치유 피정 / 문의: 010-4444-1264

내용: 상하이트리스트, 찬양치유 피정, 미사/점심 무료 제공
 때, 곳: 11월 19일(수), 갈현동성당(전철 3호선 연신내역 7번 출구) / 강사: 조남구 신부(공도성당 주임)

가정성화를 위한 꽃동네 성령 피정(꽃동네 기도회)

대상: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 모든 분들
 때, 곳: 11월 22일(토) 11시~23일(주일) 16시, 음성꽃동네 사랑의 영성원 / 문의: 010-5490-5345
 회비: 8만원(사전 접수자만 피정 가능)

서울대교구 성령쇄신봉사회 철야기도회

강사: 양창우 신부 / 문의: 010-3242-6868
 때, 곳: 10월 24일 18시~22시(미사 21시), 전철 2호선 신림역 5번 출구 버스 500·504·651 환승, 천주교 성령봉사회관 하차 / 울동, 찬양, 고해성사

14동작지구 성령쇄신봉사회 낮피정 / 문의: 010-3341-1354

때, 곳: 13시~16시, 동작동성당 3층 대성전
 10월 21일(화) 윤민재 신부 11월 18일(화) 민동규 신부

2026년 이탈리아 순례(작은형제회)

내용: 로마, 아시시 및 프란치스코 성지
 문의: 010-9704-9495(www.terrasanta.kr) 작은형제회 이스라엘성지 한국대표부

81차	3월 11일(수)~22일(주일)	회비: 545만원
82차	5월 26일(화)~6월 6일(토)	회비: 545만원

예수수도회 영성센터 프로그램

곳: 전철 1·7호선 온수역 10분 거리 / 010-6890-7223
 영신수련 2박3일 피정 11월 7일~9일, 2026년 1월 30일~2월 1일
 엄마와 딸(미혼) 피정 11월 22일(토)~23일(주일)
 영신수련 8일 피정(9박10일) 1월 14일(수)~23일(금)

예수회 영신수련 침묵 피정 / 문의: 02)3276-7794

때, 곳: 12월 26일(금)~2026년 1월 4일(주일)·1월 8일(목)~17일(토)·1월 23일(금)~2월 1일(주일), 예수마음 배움터 / 주최: 예수회 영신수련 동반자 양성센터

평신도를 위한 침묵 피정(한국CLC)

주제: 너희는 따로 외딴 곳으로 가서 좀 쉬어라
 자연속에서 침묵하며 나와 함께하시는 하느님 만나기
 때, 곳: 10월 31일(금)~11월 2일(주일), 서울 예수수도회 영성센터(전철 1·7호선 온수역)
 10월 23일까지 접수(1인1실) / 문의: 02)2135-9398

효소단식 성체신심 치유 피정(가톨릭 교수회)

영성과 디톡스로 자연치유력 회복
 때, 곳: 11월 14일(금)~17일(월)·12월 19일(금)~22일(월)·2026년 1월 16일(금)~19일(월), 성 도미니코 수도원(수유동) / 회비: 36만원(효소비 포함)
 본당별 출장피정 신청 가능 / 문의: 010-9363-7784

제주 성 이시돌 자연순례 피정

성 이시돌 목장 내 성지에서 섬과 성지순례 제주여행, 자연순례(2026년 피정 접수중)
 대상: 개인, 가족, 본당 구반장, 소규모 모임
 때: 자연순례 11월 10일~13일·11월 27일~29일·12월 5일~7일·12월 13일~15일·12월 19일~21일·2026년 1월 10일~12일, 추자도포함 성지순례 11월 15일~18일·12월 1일~3일, 연말연시 12월 31일~1월 3일(한라산·해남·해돋이)
 문의: 064)796-4182, 02)773-1455 제주 자연 피정

제주 산들 평화 순례 피정(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제주 성지와 푸른 숲과 바다 그리고 올레길 순례
 때: 위령성월 피정 11월 2일~4일, 제주순례 피정 10월 27일~29일·12월 6일~8일·12월 12일~14일·11월 22일~25일(추자도 성지순례), 한라산 눈꽃영산산행 2026년 1월 9일~11일·1월 15일~18일·1월 23일~25일·1월 30일~2월 1일·2월 6일~8일·2월 22일~24일·2월 27일~3월 1일, 연말연시 피정(한라산·해남·해돋이) 12월 31일~1월 3일
 2026년 피정 접수 중 / 문의: 064)732-4702 만형의 집

성지순례·성베네딕도외곽수도원 문화영성센터 탐방

문의: 010-3807-1784 라 이시돌

국내	12월 6일~9일(부산 8곳·마산 6곳), 12월 18일~21일(대전 23곳) / 출발: 가톨릭회관(명동) 후문
홍콩·마카오·심천	2026년 1월 26일~29일 / 대한항공

예수마음기도 영성수련

곳: 문산 예수마음 피정의 집(주최)
 문의(접수): 010-4906-5722, 031)953-6932

1박2일	12월 20일(토)~21일(주일)
3박4일	10월 30일(목)~11월 2일(주일), 11월 27일(목)~30일(주일)
8박9일	11월 5일~13일, 12월 26일~2026년 1월 3일
40일	12월 17일(수)~1월 25일(주일)

예수고난회 서울 명상의 집 피정 / 문의: 02)990-1004

개방의 날 매일 첫번째(금) 11월 7일 10시~15시30분
 성모님과 함께하는 무료가를 피정 10월 25일(토) 10시~16시
 수련생을 위한 기도 피정 11월 13일(목)
 가톨릭서간과 함께하는 대침묵 피정 11월 28일(금)~30일(주일)
 요한묵시록과 함께하는 대침묵 피정 12월 10일(수)~13일(토)
 송년 피정 12월 31일(수)~2026년 1월 1일(목) / 선착순 접수
 노예나 기도 접수 11월 2일~10일 / 미사·위령기도 봉헌
 단체 피정(자체·위탁) / 개인 피정 가능

제주 '푸른꿈 제주섬' 피정

강우일 주교와 함께하는 섬, 순례(성지·자연), 말씀초대
 대상: 개인, 단체, 가족, 본당(사목위원·구반장) 환영
 때: 10월 30일~11월 1일·11월 11일~13일
 곳: 성 이시돌 피정의 집(한국통합사목센터·주최)
 문의: 010-9670-9775, 010-7200-4567

성골롬반외방선교회 후원회원 무료 피정

'오늘 이 집에 구원이 내렸다.'
 강사: 김성대·권태문 신부 / 미사: 양창우 신부
 때, 곳: 11월 7일(금) 10시~16시, 가톨릭회관 1층
 문의(접수): 02)929-2977

인천교구 지혜의 샘 피정 프로그램

곳: 인천교구 지혜의샘(부천시 경인로 61-1, 중동역 5분 거리) / 문의: 032)343-1871, 010-3248-9705
 1) 33일 봉헌 감사 피정: 10월 27일(월) 10시~17시
 강사: 서인석 신부, 한영임 회장 / 점심 무료제공
 2) 영적 전령 대피정: 10월 29일(수) 10시~17시
 강사: 한영호 신부, 한영임 회장 / 점심 무료제공

교육

새천년복음화학교 1단계 152기 개강

때, 곳: 10월 20일(월) 19시, 가톨릭회관 1층 강당
 회비: 7만원 / 문의: 02)753-8765, 010-8931-8765

성가발성 노래교실 / 문의: 010-9842-8818

'다함께 성가를 TV' 이호중 교수 직장
 곳: 시스미나 음악원(주최 / 신촌·서초)

성인 초등·중학생 모집(한국여성생활연구원)

영어기초 ABC, 한글, 수학, 초등·중학 과정
 교육청 인정, 선착순 접수 / 문의: 02)727-2471

이론 수강생 모집(입문반·실기)

때, 곳: 11월 6일~2026년 1월 22일 매주(목) 10시~13시(10회), 과달루페 외방 선교회(주최) 서울 분원
 문의(접수): 010-8618-3451 송석철 교수

노들담수녀회 '성경 두레박'(성경 강의)

대상: 성경에 관심 있는 누구나(선착순) / 회비: 4만원
 때, 곳: 11월 12일(수) 10시~16시30분, 노들담교육관(종로 북촌) / 문의: 02)3673-2274, 010-8033-4415

광희문성지 교회사와 성지순례 특강

회비: 1만원 / 문의: 02)2234-1456
 조한건 신부 / 네이버카페 '광희문성지' 참조
 때: 매월 첫째·셋째(주일) 15시 미사 후

가톨릭대학교 생명대학원 신입생 모집(2026년 전기)

모집전공: 생명윤리학(임상연구윤리학), 생명문화학 석사과정 / 입학전형: 12월 1일(월) 14시
 원서접수: 11월 3일(월)~14일(금) 17시
 문의: 02)3147-8156 대학원교학팀, 02)3147-8664 조교

서강대학교 신학대학원(주간) 신입생 모집

원서접수: 10월 20일(월)까지
 전형일: 10월 25일(토) / 문의: 02)705-8668, 9

모 집 전 공	신학	신앙과 삶이 하나 되는 통합적 신학과 함께 걸어가는 신학 추구
	철학	삶으로서의 철학함을 통해 삶의 문제 해결과 고통받는 인간 치유
	영성·철학상담 가톨릭사회복지학 사회복지학	사회문제에 적극 개입하여 실천적 대안 모색

스테인드글라스 교육(가톨릭스테인드글라스회)

카페(lukeglass.com) 참조 / 문의: 02)324-0852

고상·성모상·묵주조각 교육(가톨릭목공예)

접수: cafe.naver.com/rosary10 / 문의: 010-5234-5044

전진상 영성센터 월특강-얼굴 윤리학

타인의 얼굴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고 다가가기
강사: 박연규 교수 / 문의: 02)726-0700(www.jjscen.or.kr)
때, 곳: 11월 4일~25일 매주(화) 14시~16시(4회), 명동

아버지학교 지원자 모집(서울대교구 42기)

때, 곳: 10월 26일~11월 23일 매주(주일) 13시30분~18시30분(5주간), 명일동성당 / 회비: 15만원
문의(접수): 0505-503-7080(sufather2009@naver.com)

성음악클래식기타로 주님을 찬양하는 주법

때: (월)·(화)·(수)·(금)·(토) 13시30분
곳: 삼동역 본회 / 문의: 010-9297-1543 이화진
주최: 가톨릭성음악클래식기타회(지도: 김경희 신부)

신당종합사회복지관 교육문화 참여자 모집

내용: 성인-몸살림운동·피아노·여행영어 완전
정복·어반스케치, 아동-피아노·창의력 미술
문의(회비·접수): 02)2231-1876~9

예수살이공동체 배동제자교육(56/40기)

주제: 갈릴래아 예수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소비
사회에서 자유, 기쁨, 투신의 복음적 인생관 찾아
떠나는 3일의 여정 / 대상: 20세 이상 천주교 신자
때: 10월 31일(금)~11월 2일(주일) / 문의: 010-6750-2144
곳: 성령선교수녀회(종로구 창경궁로) / 회비: 18만원

**신부와 함께하는 영성독서 프로그램(영성독서지
도사 양성 포함) / 문의: 010-8477-6688**

내용: 영적독서 과정(6주) / 수료증이나 자격증 수여
때: 10월 16일부터 매주(목) 19시~21시 / 회비: 10만원
곳: 가톨릭회관 1층 회의실 / 대상: 신자들의 영
적 성숙 및 교회에서 봉사하고자 하는 분들
주최: 한국가톨릭독서모임(한국가톨릭문화연구원)

모집

예수성심 전교수도회 재속(친교회) 회원 모집

대상: 만 65세 이하 교우 / 문의: 010-8735-4889

2025년 명동대성당 가톨릭합창단 신입단원 모집

때: 11월 15일 14시 / 대상: 1980년 이후 출생자
홈페이지(https://www.catholic-choir.or.kr) 참조
문의: 010-3211-5195 (문자)

청소년자원봉사자 모집(성빈센트청소년회)

대상: 자원봉사활동을 원하는 현재 초6학년~중
·고등부 / 문의: 02)926-3440, 010-6880-9605
내용: 연탄봉사, 농촌체험, 사회복지시설방문,
환경캠페인 등 / 홈페이지: www.stvin.or.kr

미사

평양교구 신우회 월례 미사 / 문의: 02)727-2056

때, 곳: 10월 22일 11시, 명동대성당 문화관 2층 소성당

서소문 밖 네거리 순교성지 위령의 날 미사

때: 11월 2일(주일) 15시 / 문의: 02)3147-2402
곳: 서소문성지 역사박물관 B3 콘솔레이션홀

안내

가톨릭여성심리상담소

심리, 가족갈등 전화상담
상담·문의: 02)990-9366 (월~금) 10시~16시

제23회 카리타스합창단 정기연주회 초대

때, 곳: 10월 24일(금) 19시30분, 이문동성당 대성전
티켓 전석 초대 / 문의: 010-2686-0185

불길 심리상담연구소(마리스타 교육수사회)

전문상담: 청소년, 개인, 가족, 단기부부상담 / 컷티 무료
곳: 합정 / 문의(예약): 010-8981-8356 (전화상담 가능)

대건캠퍼라이어 26회 정기연주회

'젤렌카연주시리즈 7' Requiem(zwv 46), Missa
Paschalis(zwv 7) / 문의: 010-6356-3347
때, 곳: 11월 3일 19시30분, 영산아트홀

제12회 가톨릭영화제

때, 곳: 10월 23일(목)~26일(주일), CGV명동역 씨네
라이브러리 / 주제: 희망으로 나아가는 길
상영작: 홈페이지(caff.kr) 참조 / 무료 입장
문의: 0507-1424-0712 가톨릭영화인협회

꼬메스심리상담소(도미니코 수도회)

상담을 통한 치유와 성장이 있는 따뜻한 동행
내용: 가족, 부부, 갈등, 심리, 영적성장
방법: 대면, 온라인, 전화 모두 가능
문의: 010-9916-5798 노경덕 신부(상담자)

천주교 서울대교구 카프성모병원

알코올전문병원, 중독중점 입원 및 외래 통원
치료(도박·인터넷 게임) / 홈페이지: www.karf.co.kr
우울, 불안, 수면 장애 등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때: (월~금) 9시~17시 / 문의(진료·입원): 031)810-9200
곳: 고양시 전철 3호선 백석역 7번 출구 5분 거리

가톨릭뇌은행 뇌기증 희망자 모집

치매와 파킨슨병 등의 퇴행성 뇌질환의 극복을
위해 사후 뇌기증 희망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대상: 성인 누구나(만 19세 이상) / 문의: 02)2258-7660
관련기관: 과기부 산하 한국뇌은행
기관: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가톨릭뇌은행

정신분석심리상담센터 IPC

대상: 심리적, 정신적, 영적인 고통으로 전문적
인 심리상담치료사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
곳: 강남 / 문의: 010-9139-1937 마리아의 작은 자매회

바로로팔 문화콘서트-치유와 위로의 선율, 하프

내용: 해설과 함께 하프를 가까이 경험할 수 있는 음악회
때, 곳: 11월 1일(토) 11시, 알베리오네센터 강당
출연: 오상은(하프), 장승호(기타), 최수은(플루
트), 전다현(하프) / 접수: 바로로팔 인터넷서점
사이트(무료, 선착순 사전 접수)
문의: 02)944-0829 (업무 시간, 010-7286-7724 (문자))

진애인 심리상담센터

곳: 명동 / 02)587-9207(https://jinain.com) 토요일상담 가능

전문 심리상담	불안, 우울, 분노, 공황장애, 강박적 행동, 부부, 가족간의 갈등, 대인기피 등 마음투자 정부지원금 신청 해당기관
------------	--

유관단체 알림

한민족통기회 통일기원 미사

때: 10월 28일(화) 14시 / 문의: 010-8126-5676
곳: 가톨릭회관 1층 소성당 101호 / 주례: 신회준 신부

룩스 노바(LUX NOVA) 사목세미나

주제: 서울의 청년세대의 인구사회적 특성과 종
교성의 변화 / 발제: 변미리 박사(서울연구원)
대상: 청소년 사목 관심자 / 회비: 2만원(20명 마감)
때: 10월 31일(금) 14시30분~17시
곳: 햇살사목센터(주최, 종로구 혜화로2길 20)
문의(접수): 02)744-0840 평일 10시~18시

직원모집

가톨릭대학교 성신교정 일반행정·아간당직 경비 모집

홈페이지(https://songsin.catholic.ac.kr)-성신광장-
모집공고 참조 / 문의: 02)740-9707, 8

청년문화공간JU 직원 모집

분야: 대관 및 행정 / 문의: 02)338-7830
11월 16일(주일)까지 청년문화공간JU 홈페이지
게시판 공지사항 참조하여 접수 / 11월 중 면접 예정
1차 서류 전형, 2차 면접(합격자 개별 연락)

가톨릭출판사 직원 모집 / 문의: 02)6365-1829

홈페이지를 통한 입사지원서(본사양식) 온라인 접수
접수: 본사 플랫폼(catholicbookplus.kr)-회사소개-
홈페이지(catholicbooks.kr)-채용정보 / 근무조건·세
부 사항은 부문별 상이하니 채용정보 반드시 확인

모집 분야	담당 업무
경영관리국	재무회계, 경영 지원
물류지원팀	물류지원

수도회 성소모임	때	곳	문의
그리스도의 교육 수녀회	수시	수녀원(명창동)	010-8852-9817 황 수산나 수녀
콘벤뚜알 프란치스코 수도회	매일 첫째주(주일) 14시	성 보나벤투라 수도원(혜화동)	010-4344-1997 권정대 수사 신부
미리내 천주 성삼 성직 수도회	수시 / 전화 상담 후 결정	본원	010-5195-3217 성소부
성 도미니코 선교 수녀회	개별적 협의	수녀원(미아동)	010-5604-1882
작은예수수녀회	수시	수녀원(군자)	010-8867-3217
천주교서울교구제천교회	수시	선교회	02)749-4596, 010-2749-4596
한국외방선교수녀회	수시	가톨릭회관 209호	010-9353-1773

서울주보 '알림'에 게재되는 내용에 대한 책임은 각 신청 단체에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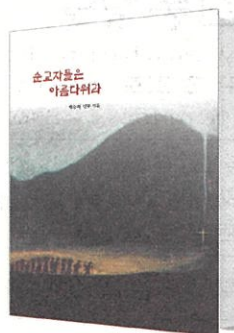


신간

청춘이라는 레시피

이문수 지음
생활성서사 | 176쪽 | 1만5천원
문의: 02)945-5987

이 책은 이문수 신부가 만난, 개성도 사연도 다른 열여덟 명의 청년들 이야기다. 치열한 세상 속에서 저마다 힘껏 빛을 내며 나아가는 청년들의 삶을 응원하는 따뜻한 마음과 애정 어린 메시지가 듬뿍 담겨 있다. 이 신부는 산티아고 순례길을 함께 걷는 '청년희망로드', 청년들의 꿈을 지원하는 '2030청년영화제' 등 다양한 활동으로 청년들을 만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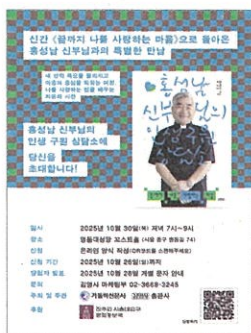


신간

순교자들은
아름다워라

배승록 지음
기쁜소식 | 384쪽 | 1만8천원
문의: 02)762-1194

우리 신앙의 순교 선조들 덕분에 우리는 매일같이 축복된 시간을 살고 있다. 저자 배승록 신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사소한 일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오직 믿음의 길을 바라볼 수 있도록, 삶의 모범을 보여주신 순교 선조들의 이야기를 잔잔하면서도 감동적으로 전해 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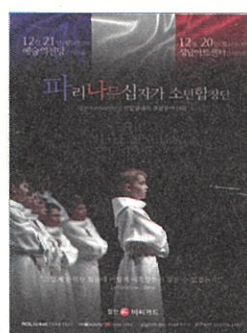


북토크

《끝까지 나를 사랑하는 마음》
홍성남 신부 북토크

때, 곳: 10월 30일(목) 19시~21시, 명동대성당
성당 게스트홀 / 신청: 온라인 양식 작성
(<https://naver.me/5JGrtcku>)
문의: 02)3668-3245 김영사 마케팅팀

“끝까지 나를 사랑할 때, 삶은 다시 빛난다.” 신간 《끝까지 나를 사랑하는 마음》을 펴낸 홍성남 신부와 특별한 북토크가 10월 30일(목)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명동대성당 게스트홀에서 열린다. 내 안의 폭군을 물리치고 마음의 중심을 되찾는 여정, 나를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치유의 시간이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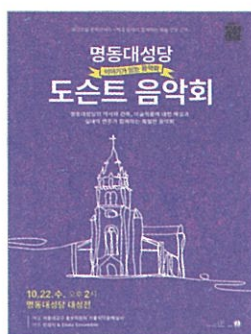


공연

파리나무십자가소녀합창단
크리스마스 특별초청공연

입장권: R석 12만원, S석 11만원, A석 9만원, B석 7만원, C석 5만원(예술의전당) / R석 11만원, S석 10만원, A석 8만원, B석 5만원(성남아트센터 콘서트홀)
문의: 031)738-1492
전화 예약 후 관람 당일 서울주보나 모바일의 본 안내문 참조시 10% 할인

프랑스를 대표하는 세계 유일의 아카펠라 소년합창단으로 비오 12세 교황님께 '평화의 사도'라는 별칭을 받은 파리나무십자가소녀합창단이 12월 21일(주일) 17시, 예술의전당 / 12월 20일(토) 19시30분, 성남아트센터에서 공연한다. 맑고 순수한 아이들의 음성으로 성탄의 기쁨과 은총을 함께 나누는 감동의 무대가 될 것이다.



음악회

바오로딸 문화콘서트
명동대성당
도슨트 음악회

때, 곳: 10월 22일(수) 14시, 명동성당 대성전
신청: 바오로딸 인터넷서점 사이트
문의: 02)944-0829(업무 시간), 010-7286-7724(문자) / 전석 무료(사전 신청, 선착순)

명동성당의 역사와 건축, 소장 예술품에 대한 도슨트 해설과 바이올리니스트 양성식과 Erato Ensemble의 실내악 연주가 함께하는 특별한 음악회가 열린다. '명동대성당 도슨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서울대교구 홍보위원회와 성바오로딸수도회가 함께하는 이 음악회는 명동대성당의 숨은 이야기와 풍성한 선율이 어우러져 아름다운 예술을 산책하는 시간이 될 것이다.



연극

길 위에서

때: 10월 24일(금)~26일(주일)
곳: 서강대학교 메리홀 대극장
공연시간: 10월 24일 19시, 10월 25일 15시·19시, 10월 26일 15시·19시
전석 무료 / 문의: 010-2990-7147

“그는 순교의 길을 걸었고, 우리는 그 길을 꽃길로 기억합니다.” 연극 〈길 위에서〉는 가경자 최양업 토마스 신부님의 시복·시성을 위한 창작극이다.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과 함께한 조선의 사제, 최양업 신부님의 삶을 무대에 담아내며, 그가 걸었던 고단한 신앙의 여정을 통해 오늘의 우리 신앙을 돌아보는 감동의 시간을 선사한다.



제2시대문·미포지구 대표본당

진주교연희동상당

http://www.yeonhui.or.kr

03727 서울시 시대문구 연희로 64-14

본당사무실 : 323-4450~1, 4456 FAX : 336-2233

지구장신부 : 김 현 (안토니오)

주임신부 : 최장민 (도미니코)

부주임신부 : 백종원 (마르코)

보좌신부 : 최원영 (스테파노)

연령회장 : 이범자(루시아) 010-6288-1683

주일 미사	• 토요일 : 오후 3시 (초등부), 오후 6시 • 주 일 : 오전 7시, 오전 9시, 오전 10시 30분 (중고등부반대), 오전 11시 (교중) 오후 5시 (신촌세브란스병원), 오후 6시 (청년)	유 아 세 례	홀수 달 첫째 주일 오후 4시 30분
평일 미사	• 월요일 : 06시 화요일 : 10시, 19시 수요일~금요일 : 06시, 10시 토요일 : 06시	혼 인 면 담	매월 첫째 주 일 오후 3시
		성모신심미사	매월 첫째 토요일 오전 10시
		성 시 간	매월 첫째 목요일 오전 10시미사 후

● 예비신자를 초대합니다.

- 첫모임 : 10월 26일(주일) 오전 10시 / 304호
- 추가모집 : 11월 19일(수) 까지
- 대상 : 예비신자, 외딴교우, 첫영성체준비자
- 교리시간 : 주일반 : 오전 9시~10시 / 304호
수요반 : 오후 7시~8시 / 304호
- 세례식 : 2026년 4월 26일(주일)
- ※ 예비신자 인도에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 성소후원회 미사

- 일시 : 10월 21일(화) 오전 10시

● 병자영성체

- 일시 : 10월 24일(금) 오전 10시 출발
- ※ 병자영성체를 원하시는 분은 구역장님 또는 사무실에 미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입 교우를 환영합니다 (9월~10월)

- 환영식 : 10월 26일(주일) 11시 교중미사 중

성명	세례명	구역/반	성명	세례명	구역/반
허정련	실비아	2-2	김동희	베드로	2-3
김비봉	마리아비안네	2-3	이민엽	바실리오	3-3
김부성	마르코	5-1	여정금	엘리사벳	5-1
위재희	아네스	5-3	이창주	아론	8-5
신두철	토마스아퀴나스	9-1	김로사	로사	9-6

● 여성울드레아

- 일시 : 10월 21일(화) 오전 10시미사 후 304호

● 시니어대학 가을 성지순례

- 일시 : 10월 24일(금)
- 장소 : 양평군 양근성지 외
- 준비물 : 미사도구 및 미사예물
- 대상자 : 시니어대학 등록학생
- 출발 장소/시간 : 성당마당 / 아침 8시

● 남성분과 활성화를 위한 탁구대회

- 일시 : 10월 25일(토) 오후 2시~5시
- 장소 : 탁구장(지하 식당 옆)
- 뒤편이 : 오후 5시30분 / 한우명가
- 문의 : 서종만 요셉 (010-4248-0721)

● 초등부주일학교 교사 모집

- 밝고 사랑이 넘치는 초등부주일학교 교사를 모집합니다.
- 대상 : 관심 있는 청년/자모님 누구나
- 문의 : 허보윤 미카엘라 교감
(010-8484-4374)



● 청년「이레밴드」단원 모집

- 모집파트 : 드럼 및 연주자 전 파트 (상시모집)
- 연습일시 : 매 주일 오후 3시
- 문의 : 필립보네리 단장 (010-8276-0512)

● 여성총구역 송편 판매 (9/27~9/28)

- 판매량/수익금 : 288봉지 / 725,000원
- ※ 도움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오늘은 물질적·영적으로 궁핍한 선교지역의 형제들을 위한 전교주일 2차헌금이 있습니다.

● 교무금 책정 현황 (2025. 10. 12)

총세대	책정세대 (책정률)	납부세대 (납부율)	2024년 책정률	2024년 납부율
2,012	792 (37.7%)	711 (35.3%)	42.9%	41.6%

교무금 계좌번호	우리은행	137-04-110875
----------	------	---------------

● 연령회 감사헌금

故 박대희 마태오 상가 일십만원

● 감사헌금 (9월 29일 ~ 10월 12일)

최흥순 오만원 광천모 일만원
한인경 이십만원 배금좌 삼십만원
박명숙 오만원 김진웅 오만원
김영종 일십만원 양혜숙 오십만원
한인경 일십만원 김인기 일십만원
박기원 일십만원 익명 오만원
익명 일십만원
故 박대희 마태오 상가 이십만원

● 우리들의 정성 (연중 제27주일 및 제28주일)

교 무 금(10/5) 15,930,000원
교 무 금(10/12) 6,025,000원
주일헌금(10/5) 5,278,000원
주일헌금(10/12) 5,833,000원
군인주일 2차헌금(10/12) 2,498,500원

입당	39	봉헌	340,221,219	성체	151,152,153	파견	63
----	----	----	-------------	----	-------------	----	----



주님은 민족들의 눈앞에 당신 정의를 드러내셨네